

CIS 지역

□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 현황

□ 對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 감소 추세

-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등록된 對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 실적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국제은행 등을 통해 융자받아 투자한 실적 등은 포함되지 않음. 따라서 실제 투자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-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은 1993 년부터 시작되어 2003 년 말 현재 총 49 건 253,631 천불을 기록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진출 규모가 급감하여 연간 평균 3 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.
- 주요 투자 내역은 제조업이 총 39 건으로 243,772 천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타 분야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음. 주요 투자 기업은 대우자동차, 갑을 방적, 대우 방적, 동산 의류 등임.
- 상기 투자 진출 규모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등록된 투자진출 실적만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투자액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. 관련자들에 의하면 실제 총 투자액은 10 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.

□ 주요 투자 진출 내역

- 우선 가장 큰 투자진출 회사는 대우자동차인데, 총 투자규모가 약 6 억 5 천만불이고, 그 중 대우자동차의 투자액이 약 3 억 3 천만불임. 다음으로 큰 규모는 갑을 방적으로서 총 투자액이 2 억 2 천만불이며, 한국 갑을방적은 동 투자액의 70%를 분담하였음.
- 다음으로 규모가 큰 투자는 대우텍스타일로서 총 투자액이 약 1 억불에 달함. 그 외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투자라고 볼 수 있음.

[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유망 분야]

□ 자동차부품

-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우 자동차 조립생산 대수를 매년 증가시킬 전망이다. 2004 년에는 70,000 대, 2005 년에는 100,000 대를 조립생산 할 계획임.
-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의 30%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, 향후 자국산 부품을 70%로 확대할 계획이며, 합작투자할 한국 기업을 물색중임.

□ 섬유식품 및 봉제

-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수확량은 세계에서 5 위권이며, 목화수출량은 세계에서 2 위를 점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식품 및 봉제 기업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계획중임.
- 월 인건비가 제세를 포함하여 약 60-70 불 수준이므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□ 의약품 및 의료기기

-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할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.
- 예를 들면, 1 회용 주사기의 경우, 값싼 중국산의 對우즈베키스탄 진출 증가로 인해 한국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필요한 실정임.

< 연도별 투자 현황 >

(단위 : US\$ 천)

연도	총투자		순투자(잔존액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1993	3	205,000	2	104,000
1994	4	58,000	2	29,000
1995	10	130,988	9	83,588
1996	8	24,404	7	19,024
1997	13	21,859	11	13,040
1998	1	2,500	0	-700
1999	3	322	3	322
2000	3	168	3	168
2001	2	3,130	2	3,130
2002	4	356	4	356
2003	6	1,703	6	1,703
누계	57	448,430	49	253,631

(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, KOTRA)

< 업종별 투자 현황(1993-2003 년) >

(단위 : US\$ 천)

업 종	총투자		순투자(잔존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농림어업	0	0	0	0
제조업	45	430,169	39	243,772
도소매업	5	1,326	5	1,326

통신업	2	3,600	1	1,800
숙박음식점업	5	13,335	4	6,733
부동산 및 서비스업	0	0	0	0
합 계	57	448,430	49	253,631

(자료원 : 한국수출입은행, KOTRA)

(문의처 : 타슈켄트무역관 권태진 tashkent@kotra.or.kr)